

레슬리 알렌 박사, 에스겔 , 강의 17, 에돔의 운명 과 이스라엘의 미래, 에스겔 35: 1-36:15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에돔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에스겔 35:1-36:15.

우리는 지금 33장부터 시작해 37장 끝까지 이어지는 다섯 번째 부분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35장 1절부터 36장 15절 중간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에돔의 운명 대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부릅니다. 장을 나누는 기독교 전통에서 이 부분은 36장의 전반부인 35장과 36장의 두 장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문학적 단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35장 1절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고, 예언적 메시지를 받는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고, 우리는 다음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36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따라서 35:1부터 36:15까지 함께 속합니다. 35장은 사실상 에돔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왜 25장부터 32장까지의 외국 메시지 모음집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모음집에는 25:12-14에 에돔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비난은 58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빌론 사람들을 지원하는 에돔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돔은 유다 남동쪽과 사해 남쪽의 산악 지역의 지리적 이름인 세일 산이라고 불립니다.

그곳은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35장에서는 587에 대한 고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유다가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

에돔 사람들이 유다 남부 지역을 점령한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돔에 대한 이 소식은 35장에 나오는 소식보다 후기 기간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35분부터 36분 15초까지 의도적으로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대조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고, 그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호일입니다.

35장은 36장 1~15절로 인해, 36장 1~15절로 인해 이 지점에 존재한다. 이는 진행 중인 앞으로 이동하는 교통에 대한 녹색 신호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하는 교차 교통에 대한 빨간 신호와 같습니다. 에돔의 진보는 점검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진보는 확인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에돔은 오랫동안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공통 조상을 추적하여 야곱과 에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최근 역사에서 에돔은 594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반바벨론 회의에 대표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레미야 27장 3절에서 반란을 계획하는 서방 국가들의 회의, 모두가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두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돔은 바벨론의 적보다는 동맹자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유다처럼 바벨론의 손에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에돔의 전환을 결코 잊지 않았고, 그때부터 에돔은 유다의 대적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587년에 에돔이 취한 태도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시편 7절에서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에돔 족속을 향하여 그들이 이르기 를 헐라 , 헐어 멸하라, 하였음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기초.

그리고 애가 4.22은 훨씬 작은 규모로 에스겔 35-36:15의 요약과 매우 유사하게 읽혀집니다. 애가 4장 22절에 보면, 딸 바벨론아 네 죄악의 형벌이 이르렀느니라 . 하나님이 너를 다시는 사로잡지 아니하시리라 딸 에돔아 네 죄악을 벌하시고 네 죄를 드러내시리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섹션에서도 매우 유사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35장은 실제로 메시지 모음입니다. 2-4, 5-9, 10-13, 14-15입니다.

각각의 메시지는 인식 공식과 동일한 메모로 끝나는, 또는 사실상 끝나는 판단의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 주가 그 비방하는 말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들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에돔은 때가 되면 자신들이 겪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인 징벌의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2-4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강력한 방법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어떤 참소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챕터의 뚜렷하고 강력한 오프닝입니다. 에스겔은 에돔을 주목하고 에돔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셨다.

내가 너를 향해 손을 뻗어 너를 황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 마을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황폐하게 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평범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5-9절의 두 번째 메시지는 5절의 짧은 비난에서 6-9절의 긴 형벌 선고로 이동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부터 원한을 품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환난의 때에 곧 최후의 형벌을 받을 때에 그들을 칼의 권세에 맡기셨으니

우리는 6절에서 그 비난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깔끔하게 시작되고 그 신호로 심판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이 특별한 비난은 25장에서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에돔 사람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책자 오바다서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을 읽었지만 여기 35:5에 있는 이 특정 구절에 대한 일종의 주석인 10-14절을 상기시켜 봅시다. 네 형 야곱에게 행한 살육과 강포로 말미암아 네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끊어지리라. 네가 비켜섰던 날, 낯선 사람들이 그의 재물을 약탈하고 이방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하나와 같았느니라.

네 형제가 불행한 날에 그를 칭찬하지 말았어야 했다. 당신은 유다 백성이 패망하는 날에 그들을 기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너는 환난 날에 자랑하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내 백성의 재앙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너희는 유다의 재앙의 날에 그 재앙을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그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물건을 약탈하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그의 도망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건널목에 서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너는 환난 날에 그의 생존자를 넘겨주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기 5절에 요약되어 있는 일련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바댜가 언급한 유용한 해석입니다.

5절은 시간에 대한 흥미로운 이중 언급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에돔 사람들과 관련하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칼의 세력에 넘겨준 고대의 적대감이 마지막으로 꽃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그들의 마지막 형벌의 때였습니다.

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기나긴 역사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587년을 언급하면서 최후의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5절에는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칼의 권세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에돔이 속한 지역에서는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6절에서는 피흘림이 너희를 따르리라. 결국 8절에서는 에돔 족속 중에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비난과 그에 따른 형벌에서

칼에 대해 이중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에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다음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10절에는 고밭이 있고, 다시 짧은 고밭이 있고, 이어서 긴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왜냐하면, 그러므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이 두 나라는 내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랑스러운 태도가 있습니다. 일단 유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자,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했던 전체 영토를 차지하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왕국은 물론이고 북왕국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거창한 계획이다. 이 비난의 역사적 배경은 에돔이 수많은 유대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땅을 떠나 유다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해 지역 남쪽에서 유다 남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다의 상당 부분을 에돔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옛 북왕국에도 진출하고 싶다는 뜻을 과시하는 제안으로 담겨 있다.

에돔 사람들은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현재 유다의 작은 부분인 남쪽 지역을 이두매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127년에 유대인들은 이두메아를 정복하고 그 주민들을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개종시켰으며 그 곳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헤롯 1세, 헤롯 대왕, 유대 왕은 실제로 이두메의 유대인이지만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점령하는 일은 10절과 12절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장대한 계획에 관해 주님께서 12절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황폐되었고 우리에게 삼키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계획을 절반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비록 주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도 거기 계셨지만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그가 개입하실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점령을 목도하셨다고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곳에 계셨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임하셨느니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하려는 에돔 사람들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이 그 점을 지적합니다.

너희는 유다뿐 아니라 너희 입으로 나를 향하여 나에 대하여 스스로 교만하였느니라. 당신은 나에 대해 당신의 말을 늘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다가오는 개입을 보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11절에 형벌이 약속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3절과 4절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위협받는 에돔의 황폐함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비난은 유다의 슬픈 경험에 대한 에돔 사람들의 악의적인 기쁨입니다.

15절: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여 그 기업을 기뻐한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상속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코를 찌르고 빼앗으려고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에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36장에 이르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를 차지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35년

말에 있었던 형벌의 메시지에서 에돔인들에게 불길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유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유다가 소유한 땅에 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권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5장이 실제로 포로들에게 주는 확신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행한 일과 에돔 사람들이 행하던 일이 역전됨을 밝히면서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상실과 유다의 굴욕에 대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의 손에 대해 이야기되는 민감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기억이 있다면, 이스라엘 산에 전한 메시지가기도 한 에스겔서 6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587 이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심판과 침략과 환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의 심판 메시지 이후에 왜 6장에서는 이스라엘 산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정통 예배와 맛먹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형상을 포함시키는 형상 숭배의 비정통적인 특징, 즉 전통적인 신앙에서 금지된 특징으로 특징지어지는 산당의 위치였습니다. 구약.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황폐하고 황폐하게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587을 넘어 이제 약속의 영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3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6장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에스겔은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산을 다시 한번 수사적으로 언급한다. 물론 그 메시지는 실제로 망명자들이 듣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597년의 전쟁 포로가 아니라 587년 이후의 포로 유입으로 인해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6장 3절에서 에스겔은 자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산뿐만 아니라 더 큰 실체, 즉 산과 언덕과 계곡과 땅에 전했습니다. 계곡. 그리고 나는 그것이 감정적인 목록이라고 제안했고, 그것은 에스겔과 유배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다양한 지리적 다양성을 지닌 아름다운 땅으로. 그리고 물론, 그 비정통적인 높은 곳이 급증하면서 목록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36장에서 그 장엄한 경청이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새 성경에서 그것을 먼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산과 언덕, 시내와 계곡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6절에서: 산과 언덕, 시내와 계곡. NIV를 보면 6장에서와 동일한 번역이 있는데, 강이 아니라 계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단어는 6장과 동일하며, 6장에 대해 36절에 또 다른 번역자가 있었고, 6장의 의도적인 반향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이 없었습니다. 말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과 36장 사이의 해당 내용은 분명히 에스겔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 첫 번째 판에 속합니다.

587년 이전에 선지자가 전한 부정적인 메시지와 587년 이후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대략 두 부분으로 깔끔하게 나누어진다. 두 번째 판에서는 전반부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다시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3장과 18장 모두에서 33장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587년 이후 시대에 속하는 행복한 결말로 예루살렘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그 슬픈 출애굽 이야기에 바벨론에서 고국으로의 새로운 대탈출에 대한 약속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초판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했고, 6장의 심판 위협에 대응하여 후반부에 36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36이 아니었는지, 1부터 15까지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6장에 추가됐나요? 그것은 거기에 아주 잘 들어맞았고 16장과 20장의 낡은 것과 새 것을 혼합하는 패턴을 따랐을 것입니다. 글쎄, 나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35장과 의도적으로 패턴화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 36장을 6장과 단순히 결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요인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제안합니다. 두 부분은 분리될 수 없는 이중 실체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이 여기에 보관되었습니다.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메시지는 1절부터 12절과 13절부터 15절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을 보면, 1절에서 이웃 나라 유다에 대한 심판의 긴 선포로 시작됩니다. 7절을 거쳐 8절부터 12절까지 포로들의 구원을 짧게 선포하며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1부터 12까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주제에서 우리는 35장에서 겪었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에돔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포함시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할 때에 내가 남은 이방인과 에돔 온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온 에돔을 치십시오.

이제 더 넓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가서 유다에게 주어질 긍정적인 약속인 약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심판으로 시작하여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구원은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 문제는 앞선 심판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1장부터 10장까지 유다의 최근 목자 왕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여 11장부터 16장까지 구원으로 끝나는 34장과 비슷합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서 훨씬 더 나은 일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기 전에 나쁜 상황을 되돌아보는 동일한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의 메시지는 구원의 약속보다 더 길다.

물론 유배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소식의 전부였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행한 나쁜 일들을 심판함으로써 유배자들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포로들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포로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이웃 국가들의 손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그들의 합당한 슬픔을 아시며, 그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에는 공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유다의 이웃 국가들을 치느니라.

35장에서 말했듯이 에돔은 다가오는 보복의 유일한 표적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더 넓은 관점이 있으며 5절에서는 다른 나라의 더 큰 그룹과 함께 에돔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우리는 이웃 팔레스타인과 국가들이 행한 일, 그들의 태도, 587년 유다에 대한 그들의 활동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슬픔에는 종종 양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적, 물질적, 객관적 상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주관적인 굴욕, 체면 상실 등에 대한 슬픔. 객관적인 상실 이후에 오는 감정. 당신은 여전히 주관적인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는 슬픔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전반부에서는 유다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를 사방에서 쳐서 너희를 남은 이방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였으므로 우리는 유다에게 객관적인 손실을 입힌다.

그것은 3절의 첫 부분에 있는 객관적인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사실, 그 객관적인 상실 이후에 이 메시지의 주요 초점은 굴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백성 중에서 비방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느니라.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략질을 당하여 객관적인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주관적인 손실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데, 에돔은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완전히 멸시하면서 그 목초지를 차지하여 그 땅을 빼앗아 약탈했습니다.

이는 객관적 손실과 주관적 손실이 혼합되어 있지만 주관적 손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나오죠? 당신은 민족들의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두 가지 방식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객관적인 상실, 그리고 그에 따른 주관적인 상실.

그래서 사실 12절에는 흠어진 방식으로 쌓이는 일종의 흠어진 불만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픔이 흔히 취하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종종 산만하고 종종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슬픔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생각하고 슬픔의 측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마음에는 뒤죽박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놀라운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 장황한 언급, 즉 계속해서 나타나는 객관적인 슬픔의 조합을 담당하시지만, 더욱이 여러 번 나타나는 주관적인 슬픔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적 고통을 함께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포로들의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에돔이 내 땅을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그 자신의 슬픔이 있었고, 하나님에게도 객관적인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들이 유다 남부의 넓은 지역을 침략하면서 자신의 땅, 즉 자신의 땅의 일부를 에돔 사람들에게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십니다. 그는 그들을 반대합니다. 그는 그들의 동맹이자 친구입니다. 그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있지만 이제는 순전히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들이 속히 본향으로 돌아올 것임이니라. 산이 내 백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약속하고 차지한 땅은 다시 한 번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사람들. 그러므로 내 백성아, 그 언약의 기간은 이제 이스라엘의 산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첫 포로들이 기원전 538년에 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하기까지는 거의 50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시대보다 꽤 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요한계시록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독자들, 첫 번째 독자들의 시대에 올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으로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여지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세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에스겔의 경우와 요한계시록의 경우, 약속이 실제로 일어나자마자 주어지는 연대적 차이보다 영적인 확신이 더 중요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기 26장의 언약적 축복을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레위기 26장은 이 제사장 선지자 에스겔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기 26장의 저주로 얽여 있었지만 이제는 레위기 26장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가 너희 인구를 증가시키리라. 레위기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의 문맥과 그에 따른 축복의 약속과 에스겔 36장의 현재 상황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에서 그러한 약속은 언약적 순종의 뒤를 이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큰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이전 장들에서 설명되었던 이스라엘의 큰 불순종의 뒤를 잇는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순종의 문제는 미래의 필요성과 미래의 실용성으로만 제시될 것입니다. 이는 36.16에 시작되는 다음 섹션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에 달려 있는 언약의 약속은 여기서 포로자들의 이전 순종을 되돌아보지 않고 암시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 헌신을 기대하는 순수한 은혜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앞서 36장 초반에 소유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36장 2절과 5절에서는 당신이 소유가 되었고, 이스라엘 산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여, 우리는 12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사용된 동사 소유를 얻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희 이스라엘 산들을 차지하리라. 따라서 이러한 테이블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상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35장 15절 끝부분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8절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약속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언약의 용어를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36절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산을 가리키는 복수형 U가 13절부터는 단수형 U로 바뀌어 아마도 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산을 뜻하는 이스라엘 땅. 그리고 때때로 36장 초반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6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배자들의 마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은 땅에 속한 오래된 낙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은 12절 끝부분에서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자녀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13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절과 22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니요, 32절입니다. 13절과 32절입니다.

그리고 이 참조를 올바르게 해보자. 왜냐하면 거기에는 땅이 아이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삼키고 있습니다. 32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니 대부분이 좋지 않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1년에 그들은 이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정탐한 일에 대해 좋지 않은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탐으로 두루 다니며 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삼켜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방자들은 분명히 그 오래된 텍스트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의 낙인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볼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하고 강력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포착되는 생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자녀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3~15에서 전개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백성을 삼키며 너희 나라 백성을 자녀를 빼앗는다 하느니라 땅도 이러하여 사람을 삼킨다. 그리고 이것이 민수기 13장과 32절에 사용된 실제 동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나라의 자녀를 잃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나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이스라엘 땅은 다시는 백성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민족들의 모욕을 너희가 듣지 못하게 하겠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의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다시는 네 나라를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고대에 그 땅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그 땅이 가졌던 나쁜 평판이 여기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그 동맹국들의 손에 군사적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위 공격 중에 많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사망했습니다. 애도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식량이 부족해 아이들이 굶어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비방은 587년의 경험을 통해 비극적으로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그것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망명자들이 가졌던 감정적인 우려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5절 마지막에 언급과 함께 이런 공감이 나옵니다. 내가 더 이상 열방의 비방을 너희가 듣지 못하게 하리라.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의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고통 외에도 주관적인 고통, 즉 패전국으로서의 굴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들은 기대할 만한 긍정적인 것, 슬픔에 잠겨 뒤를 돌아보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에돔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에스겔 35:1-36.15.